

■ 2023년도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지원 지원심의 총평

◎ 연극·뮤지컬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도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지원(창작의과정, 창작의발표) 연극·뮤지컬분야
- 회의일시 : 2022년 12월 16일(금) 10:00~15:40
- 회의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2층 위원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일송, 노하룡, 엄현희, 이병훈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지원 사업은 2021년부터 시작되어 2023년 세 번째 사업이 진행 중이다.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지원 사업은 아이디어 리서치, 창작 소재 개발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창작의 과정’ 과 신작 제작을 지원하거나 기존 완성 작품의 보완 및 유통 확산을 지원하는 ‘창작의 발표’ 로 운영된다. 2023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지원 사업 창작의 과정 연극뮤지컬 분야는 59건, 창작의 발표 연극뮤지컬 분야는 105건이 심의대상이 되었다.

심의는 심의위원회에 의한 온라인 채점과 대면 심의회의를 거쳐 진행되었다. 창작의과정은 온라인 채점과 채점 결과에 대한 회의로 지원대상자 및 지원액이 결정되었고, 창작의발표는 이 과정에 온라인 채점 결과에 따른 지원대상자 15팀의 인터뷰 과정이 더해져 최종 지원대상자와 지원액이 결정됐다. 심의회의는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되었다. 지원대상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들 간의 의견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으며, 회의 중 의견 조율 과정이 원만하게 이뤄졌다.

지원액을 결정하는 과정은 다소 이견이 있었다. 지원대상자들은 대다수 지원상한액에 맞추어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 점이 심의위원들 사이 집중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합리적으로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 노력한 단체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심의하였다. 아울러 사업의 안정적 운영 측면도 고려되어야 했다. 따라서 지원대상자들이 책정한 예산의 최하 80% 이상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지원액수를 책정하는 것으로 심의하였다. 심의위원들은 보다 많은 단체들에게 예술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안배하려는 것과 각각의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측면 사이에서의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2023년 창작의 과정과 창작의 발표 연극 뮤지컬 분야의 지원작들은 전반적으로 고른 수준을 보여주었다. 특히 심의기준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원 목적 및 신청 사업의 부합성과 예술적 우수성, 기대효과 면에서 그러했다. 어린이청소년을위한 연극 뮤지컬 분야를 다소 위축시켰던 2년 동안의 코로나 팬데믹이 점차 줄어들며, 2023년 사업에 대한 기대와 의욕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지들이 내년 결실까지 잘 이어져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연극 뮤지컬 분야가 전반적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지원작들의 경향 중 눈에 띄는 변화는 청소년극 제작을 희망하는 단체들이 늘어났다는 점이

다. 그 동안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극 뮤지컬 작품들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공연들에 비해 그 수가 현저히 적었다. 이것은 관객 모객이 여의치 않은 점과도 연관된다. 입시제도 아래에서 우리의 청소년들은 공연 관람을 자유롭게 즐기기가 매우 어려우며, 따라서 창작자들은 이들과 만나려면 넘어서고 해결해야 할 장벽들이 많다. 하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극 뮤지컬에 대한 사회 인식이 변화하며 청소년을 위한 공연 장르가 점점 안정적으로 안착하여 가고 있다. 이것은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공연예술 장르 전체적으로는 그 스펙트럼이 다양해지는 현상과 연관된다. 대상에 따른 세분화가 진행되는 것이 이번 지원작들의 경향을 통해서도 나타났다.

이번 심의에서 장르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약한 청소년극뿐 아니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연극 뮤지컬에 대해서도 대상 관객과 만나기 위한 창작자들의 고민은 고려의 대상이 되었다. 작품확산의 경우 지원의 간접적 수혜자인 관객의 규모도 심의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었으며, 따라서 공연장의 수와 규모, 회차를 고려해 더욱 많은 관객을 만날 수 있는 작품들에 비교적 높은 점수를 주었다. 또한 공연장의 위치 등 계획 과정에서도 관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폈다.

창작의 과정 연극뮤지컬 장르 지원작들은 다양한 소재에 대한 접근을 보여주었다.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에서 기존에 잘 다뤄지지 않던 소재에 대해 과감하게 접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기후위기 등 사회 이슈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작품들도 있었다. 교육적 목적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작품들보다 새로운 형식적 시도를 보여주는 한편 리서치에 대한 깊은 고민과 대상 관객들과 적극적으로 만나며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작품들에 더 높은 점수를 주었다. 또한 리서치에 대한 실제 운영 계획을 꼼꼼하게 설계했는지도 고려의 대상이 되었다.

창작의 발표 연극뮤지컬 장르 지원작들은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었으며, 그만큼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의 경합을 벌였다. 창작진의 세대는 중견부터 신진까지 다양했다. 새로운 시도와 독특한 시선 및 관점을 가진 작품들이 우선으로 고려의 대상이 되었으며, 심의위원들은 사업의 결과가 장르의 안착 및 활성화에 어떠한 기여를 하게 될지를 살펴보며 신중하게 심의를 진행했다.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연극뮤지컬은 특히 대상에 대한 이해와 고려 및 탐구하려는 시도가 중요하다. 2023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지원 연극뮤지컬 분야에 선정된 단체들은 계획했던 것을 충실히 밟아가는 과정에서 계획 이상의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

심의위원 일동

◎ 무용·음악·전통예술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도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지원(창작의과정, 창작의발표)
무용·음악·전통예술분야
- 회의일시 : 2022년 12월 15일(목) 10:00~15:30
- 회의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2층 위원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공혜진, 김승국, 김옥희, 김중현, 김형석, 조영미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예술지원 사업은 작품의 향유 대상인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예술 분야의 창작 활성화 및 우수한 창작물 제작 활동의 안정적인 창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즉, 어린이 청소년이 이해하고 감동과 울림을 줄 수 있는 우수한 예술 작품을 발굴하여 예술시장에 안착하도록 도와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등 특정 대상으로 하는 특성화된 작품을 탄생시키고자 하는 지원사업이다.

본 지원사업은 ‘창작의 과정’ 과 ‘창작의 발표’ 로 구분되는데 ‘창작의과정’ 지원사업의 목적은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예술 분야의 창작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소재를 발굴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고, ‘창작의발표’ 지원사업의 목적은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완성도 있는 예술 창작물을 발굴하여 시장 진출 및 무대화를 지원하고 창작물의 지속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심의는 제출한 지원신청서와 창작의발표의 경우 비대면 질의응답 내용을 바탕으로 심의 기준 항목인 사업 목적의 적합성과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 사업 수행역량과 기대효과 등에 따라 심도있는 논의의 과정을 거쳐 평가를 진행하였다.

창작의과정에서는 리서치 과정 또는 사전제작(초기구현)을 선택하고 신청하는 과정에서 지원단체의 체계적이고 세밀한 프로세스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신청자의 창작활동과 작품의 성장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 기대가 된다. 구체적인 계획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 과정과 내용이 세심하게 제시되었다고 판단하는 사업을 선정하고자 하였으며, 가능한 신청자가 신청한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창작의발표에서는 신청자가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지, 영유아·어린이·청소년에 이르는 대상별 특성에 맞게 작품 주제나 내용을 기획하였는지를 고려하였고, 해당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및 실행가능성을 검토하여 최종 지원자를 선정하였다. 무용·음악·전통예술에 기반하여 세심하게 기획된 공연 제작의 경험은 작품의 관객인 어린이 청소년들의 예술적 성장뿐만 아니라 단체의 우수작품 레퍼토리 구축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리라 기대가 되었다.

전체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에 관한 참신한 기획들이 많았지만, 중복된 기획이 많아 아쉬웠고, 또한 작품의 주목적이 예술교육, 예술치료 등의 경우인 작품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작품들은 본 사업의 취지에 달라 아쉽게도 선정되지 못하였다.

심의 기준에 따라 면밀한 심의를 거쳤지만 이번에 응모한 단체들의 작품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 선정에 있어 우열을 가리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으로 소수의 단체를 선정할 수 없었음을 밝혀둔다. 또, 응모단체가 희망한 지원액을 모두 반영시켜 드리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 선정에 아쉽게 탈락한 모든 예술가와 단체에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위축된 예술창작 환경에서도 예술 개발과 창작에 목말라온 창작자들의 꾸준한 열정과 창작과 유통에 지속적으로 매진해온 예술가와 단체들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심의였다.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예술 생태계가 본 사업을 통해 더욱 활성화되어 우리나라의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이 수준 높은 예술 체험으로 예술적 감수성과 상상력, 그리고 창의력이 풍부해짐은 물론 세상에 대한 이해의 폭이 증대되는 기회를 많이 얻기를 바란다.

아울러 본 예술지원 사업을 통해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완성도 있는 더 많은 창작물들이 발굴되고 준비과정과 발표과정이 효과적으로 연계되어 창작 활성화는 물론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소개되고 전달되어 예술을 즐기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심의위원 일동

◎ 시각예술·복합장르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3년도 어린이·청소년을위한예술지원(창작의과정, 창작의발표, 창작협력단) 시각예술·복합장르
- 회의일시 : 2022년 12월 14일(수) 10:00~17:50
- 회의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3층 세미나1실
- 심의위원(가나다순) : 김국희, 김민경, 김현영, 신지나, 이계원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예술지원 시각예술·복합장르 분야는 총 113건이 심의대상이었으며, 5명의 심의위원이 신중히 심사한 결과, 창작의과정 9건, 창작의발표 8건, 창작협력단 1건 최종 18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청소년이 이해하고 감동할 수 있는 우수한 예술 작품을 발굴하여 영유아·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예술 창작물이 시장에 안착하고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여, 어린이, 청소년 대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참신한 기획력과 확장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신청자의 예술창작 활동이 대상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깊게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예술작품 창작을 위한 과정을 지원하여 작품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이 품었을 가능성과 기획 의도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독창성도 중요하지만, 창작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지를 기본으로 보았으며, 무엇보다 해당 사업의 대상인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연구와 사유가 뒷받침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매우 훌륭하고 의미있는 작업 내용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아 아쉬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예술교육이나 예술치료 등을 작업의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해야 할 필요에 대해 더욱 신중히 논의하였습니다. 예술의 향유 주체가 어린이, 청소년이어서인지, 유독 워크숍이나 교육, 체험의 형태로 작업이 구체화 되는 경향이 보였는데, 이 사업이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과는 다른 지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모든 심의위원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예산 역시 예산서 상 오류가 있는 경우, 혹은 과하거나 적게 책정되었는지를 섬세하게 확인하여 작품의 제작에 무리가 없도록 조정, 배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예산적 합성에 따라 소폭 조정되었지만 실현하려는 작업과 작품 제작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전시, 공연 등 어린이, 청소년과 만날 기회가 한정적인 경우, 온라인 등 확

산 방향을 고심해 주시기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한편, 창작협력단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예술 과정 및 발표 지원에 선정된 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치열한 논의 끝에 최종으로 선정된 단체는 마침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이끌었던 곳입니다. 연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사업에 대한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더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선정자의 사업 및 작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물론 60개 이상의 주체와 개별적인 매니지먼트를 진행하기는 매우 고단한 일이겠지만 때에 맞는 정확한 도움은 지난한 과정을 현명하게 넘기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분야가 협업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도록 네트워킹 행사를 디자인하고, 잠깐이어도 서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독자적인 작업을 끝고 나갈 주체들은 물리적, 정신적으로 고립되기 쉬워, 누군가의 정확한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열정과 수고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예술 작품 등을 따로 제작한다면, 왜 그런 형태여야 하는지, 반드시 그런 내용이어야 할지 깊은 고민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예술의 난해함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제안해 주신 것도 좋았지만, “예술이 가진 빛나는 정수를 새롭게 감각하도록” 의도한 작업을 보며 몹시 기뻐했습니다. 특정 연령을 위한 예술이 반드시 지속되어야 할 이유를 이번 지원서들 안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선정된 작업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 작업자와 향유자 모두 강렬하고 아름다운 모먼트와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심의위원 일동